

《티보 가의 사람들》

15년 걸려서 완결을 본 책

《티보 가의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을 접할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냄새다. 서울역 근처 어느 학원 골목에 있던 작은 헌책방,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던 이상야릇한 냄새. 시커먼 대걸레로 대충 문지른 타일 바닥에서 나는 고린내인지, 아니면 그날 점심으로 똑딱 끊어먹은 청국장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을 구경하는 내내 코를 괴롭힌 고약한 냄새였다. 그 잊지 못할 냄새가 풍기던 헌책방에서 건진 책들 가운데 청계연구소에서 나온 여섯 권짜리 《티보 가》가 있었다.

클_박중서

다 른 출판사에서 나온 한 권짜리 책을 이미 읽은 다음이었지만, 어째서 같은 소설인데도 분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티보 가》는 전8부의 대하소설이었고, 내가 읽은 한 권짜리는 그 중 1부에서 3부까지의 번역이었다. 청계연구소 판 여섯 권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겨우 두 번째 권의 절반까지였다. 그 여섯 권이 전부인가 싶어 뒷날개의 권별 목차를 살펴보았더니, 원래는 일곱 권이 완결인데 마지막 권인 제8부 ‘에필로그’는 근간 예정이었다. 완질이었던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뒤에 출간되는 대로 구해 보자 싶어 일단 여섯 권만 사기로 했다.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낸 프랑스 소설?

그나저나 사회과학 출판사로만 있었던 청계연구소에서 프랑스 소설을 펴냈다니 처음에는 좀 의외였다. 게다가 제1권의 뒤표지에 이 작품을 가리켜 “참여소설의 최초의 작품”이라 했다는 카뮈의 인용문이 나온 걸 보니 더욱 의외였다. 내가 읽은 《티보 가》는 어디가

지나 한 소년의 반항과 고민을 그린 ‘성장소설’ 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와중에 주인공의 의식이 성장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보 가》를 “참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닌가 싶었다. 특히 제1부인 ‘회색노트’로 말하자면, 그 소설 때문에 친구와 ‘비밀노트’를 교환한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청소년 소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색노트’와 ‘참여소설’이라니..., 그건 좀 아니다 싶었다.

물론 카뮈는 ‘회색노트’나 ‘감화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즉 전8부 가운데 제7부에 해당하며, 연작 전체 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방대한 작품인 ‘1914년 여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나 역시 제7부로 접어들고 보니, 비로소 카뮈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로서는 갑작스레 그 소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당시의 나로서는 이른바 ‘참여’나 ‘대의명분’ 또는 ‘운동’이란 것에 대해 머리로나 몸으로나 선뜻 동조할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처음 몇 편과는 전혀 달라진 소설의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 분명히 ‘읽긴 읽은 책’이지만,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티보 가》의 후반부에 대한 내 기억은 거의 백지로 남아있다.

내 기억이 그렇게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책의 마지막 권, 그러니까 대미를 장식하는 제8부 ‘에필로그’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도 모르겠다. 여섯 권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제7권을 찾아 서점이나 헌책방을 얼마나 돌아다녔던가. 하지만 ‘근간 예정’이라던 제7권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출판사조차 없어진 듯했다.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제1권은 1988년, 제6권은 1990년에 나왔으니 처음 여섯 권은 파죽지세로 3년 만에 출간된 셈인데, 나머지 한 권만 나오지 못한 것이다(어쩌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청계연구소 판 제7권을 찾아 헌책방을 헤매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에 민음사에서 《티보 가의 사람들》이 다섯 권의 양

장본으로 재출간되어 버렸다. 똑같은 번역자(정지영 교수)에, 제8부 ‘에필로그’ 까지 포함된 완역본이었다. 반가움과 의무감에 책을 구해 두고서도 선뜻 손이 가진 않았다. 어쩌서인지 이제 와서 옛날에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 까닭이다. 그러다가 막상 다시 한번 읽기로 작정하고 보니, 이번에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처음부터 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읽다 그친 부분, 그러니까 제8부부터 읽어야 할 것인가? 물론 오랜만에 다시 읽는 것이니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야 했겠지만, 막상 책을 손에 쥐니 예전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놈의 ‘에필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도 무작정 결론 부분만을 펼쳐들면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그냥 어리둥절해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선 각 권의 말미에 붙은 역사 해설에 나온 전편(1부에서 7부까지)의 줄거리를 먼저 읽어본 후에 ‘에필로그’를 펼쳐들었다.

신판을 입수하고도 구판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이거... 막상 책을 읽기 시작하고 보니,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다. 전쟁 당시의 부상 후유증으로 요양 중인 앙트완느가 옛 지인들(그리고 꼬맹이 장 폴!)과 재회하는 장면들, 그리고 언뜻언뜻 비치는 과거의 회고를 하나 둘씩 따라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오래 전에 헤어진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기분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어쩌면 내가 티보가의 자

크, 그 감수성 예민하고 반항적인 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청년이 된 그가 사망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회고하는 장면을 접하게 된 때 사이에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음으로 인해, 지금 와서 뒤늦게 그 책의 결말을 읽는 것이야말로 정말 옛 추억을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 것일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문득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 주인공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싶다. 어쩌면 오래 된 ‘회색노트’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기록을 다시 뒤적이며 “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혼잣말을 되뇌며 애뜻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될까?

이 글을 쓰다 말고, 문득 청계연구소 판 《티보가》 가운데 한 권을 꺼내 펼치고 책장 사이에 코를 박은 채 쿵쿵 냄새를 맡아 본다. 시큼한 종이 냄새만 풍겨날 뿐, 뒤라 형언할 수 없었던 그때의 묘한 냄새는 이미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초록색 책등에 새겨진 검은색 제목을 보는 순간, 내 코에는 마치 그날 그곳의 고약한 냄새가 다시 풍기는 듯하다. 이것도 추억이어서일까? 나는 신판을 입수한 후에도 구판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꽂아두고 있다. 무려 열한 권이 나 되는 ‘티보 씨’ 들을 말이다. **한글**

박중서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을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



《티보가의 사람들》(전6권)
로제 마르탱 뒤 가르 지음 | 정지영 옮김 | 청계연구소 | 1988~1990
《티보가의 사람들》(전5권)
로제 마르탱 뒤 가르 지음 | 정지영 옮김 | 민음사 | 값 각권 20,000원